

석가탑 목서지편의 판독과 관련한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Production Date of *Mugujeonggwang Darani-gyeong*
(Dharani Sutra) Related to the Manuscripts Found in the Seokgatap(釋迦塔)

金 聖 洙(Kim, Sung-Soo)*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서석탑 형지기」와 「무구정광경」 |
| 2. 목서지편의 의의 및 「무구정광경」 | 5. 결 론 |
| 3. 「무구정광경」중수기와 「무구정광경」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최근에 판독된 ‘석가탑 발견 墨書紙片’의 내용 중 「무구정광경」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분석하여,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를 규명하기 위하여 논술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무구정광경」중수기 및 「서석탑 형지기」의 내용에 입각하여, 현재의 ‘석가탑’이라 지칭되는 석탑은 곧 ‘불국사 서석탑’이며 동시에 ‘무구정광경’임을 입증하였다.

② 석가탑 창건(742) 당시의 法舍利인 무구정광경은 1024년과 1038년의 중수 당시에 지속적으로 사리함 내에 安置되었으며, 바로 이 경전이 1966년에 석가탑에서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무구정광경」은 742년 석가탑의 造塔 當時에 이미 석가탑에 納入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무구정광경」은 742년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立證하였다. 고로 「무구정광경」 간행의 下限년도는 742년이다.

③ 「무구정광경」 書法(筆法)은 706년 銘文인 ‘경주 구황리 삼층석탑’에서 발굴된 사리함 蓋部(뚜껑) 내면에 기록된 서법과 그 筆性이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구정광경」의 經題筆師와 구황리석탑 명문 書寫者는 同一人物이다. 그런데, 특정 개인의 書寫 습관도 해마다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무구정광경」 목판 底本의 寫成 및 刻板年度 즉, 「무구정광경」의 간행의 上限年度는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납입년도인 706년이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판독된 목서지편의 내용과 관련하여, 法舍利로서 봉안되었던 ‘석가탑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는 706~742년이다’라고 증명하였다.

要語: 「무구정광다라니경」, 목서지편, 「무구정광다라니경」의 간행년도, 석가탑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정보학부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08년 11월 29일 최초심사일: 2008년 12월 3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15일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the records relating to the *Mugujeonggwang Darani-gyeong*(無垢淨光經: Dharani Sutra) deciphered from the piece of paper that were found in the Seokga-tap Pagoda(釋迦塔) and tried to specify the production date of the *Darani-gyeong*(Dharani Sutr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① Based on the records on “the restoration of Mugujeonggwang-tap(无垢淨光塔)” and “the foundation of Seo-Seok-tap(西石塔)”, it was confirmed that the stone pagoda currently called the Seokga-tap Pagoda(釋迦塔) was “Bulguk-sa(佛國寺) Seo-Seok-tap” as well as “Mugujeonggwang-tap”.

② The *Mugujeonggwang-gyeong* which was the Buddhist Scriptures dedicated on the first foundation of the Seokga-tap Pagoda(742), was continuously kept in the sari-ra case both in 1024 and 1038 when the Pagoda had been restored, and later discovered in 1966. The fact that the *Mugujeonggwang-gyeong* was already put inside the Seokga-tap Pagoda confirms that it was produced before 742. Therefore, the latest date of production could be 742, all things considered.

③ The calligraphic style of the *Mugujeonggwang-gyeong* is identical with the writing inside the cover of the sari-ra case found in the Three-Storied Stone Pagoda at Guhwang-li, Gyeongju, with the inscription of 706. Therefore, it can be asserted that the calligraphers of those two writings were the same person. The habit of writing might vary in years so that the earliest production date of the *Mugujeonggwang-gyeong* could be 706, when this sari-ra case was dedicated in the Three-Storied Stone Pagoda at Guhwang-li.

This research proves that the production date of the *Mugujeonggwang-gyeong* found in the Seokga-tap Pagoda ranged between 706-742, based on the piece of paper also found in the Seokga-tap Pagoda, and recently deciphered.

Keywords: the Mugujeonggwang Darani-gyeong(無垢淨光經), the production date of the Mugujeonggwang Darani-gyeong, the Seokga-tap Pagoda(釋迦塔)

1. 서론

근자에 필자는 석가탑에서 발견된 墨書紙片(‘佛國寺 无垢淨光塔 重修記’ 등 4종)¹⁾의 解讀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의 기사 등과 관련하여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시기에 관한 재검증 연구”²⁾를 발표한 바 있다.

위의 논문은, 언론의 기사 및 목서지편의 판독과 관련하여 자칫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하 ‘무구정광경’으로 약칭함)」의 간행시기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그 결론에서, ‘석가탑 발견 「무구정광경」의 간행시기 즉, 「무구정광경」 최초의 목판 板刻의 시기(「무구정광경」 간행의 上限年度)는 곧 706년임을 입증³⁾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원고 분량의 제한’과, ‘목서지편의 완전한 해독’ 및 ‘불국사·석가탑·다보탑의 창건년도’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한 파악이 미진하여, 석가탑에 납입되었던 「무구정광경」 간행의 下限年度의 究明에는 그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2007년 10월 27일에는 목서지편의 판독문이 공개되었고,⁴⁾ 이와 관련한 추가연구⁵⁾ 및 ‘무구정광탑은 다보탑일 가능성’⁶⁾ 등 목서지편의 내용에 관한

-
- 1) ‘석가탑 목서지편’이라 함은, 1966년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유물 중 2층 탑신 사리공의 바닥, 즉 사리공의 바닥과 사리외함 下部 바깥 면(外部)의 아래 사이에서 발견된 것으로, 오랜 세월 濕氣로 인하여 낱장들이 한 뭉치로 엉겨 붙어있던 紙類群을 의미한다. 그 당시에는 이 종이뭉치를 해체·분리하지 못하여 그냥 일괄유물 속에 포함되어 있었음.
 - 2)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시기에 대한 재검증 연구,” 『書誌學研究』 第36輯 (2007. 6), 39-80.
 - 3) ‘706년’이라는 시기는 석가탑 발견 「무구정광경」의 卷尾題의 글씨와 ‘무구정광경 1卷’이 최초로 納塔되었던 ‘경주 구황리 삼층석탑(傳 皇福寺址 삼층석탑)’에서 발굴된 사리함 蓋部 내면의 해당 글씨의 書法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기초한 것임(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시기에 대한 재검증 연구,” 62-75).
 - 4) ① 노명호, “목서지편 내용들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기초적 검토,” 『석가탑 발견유물조사 중간보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② 노명호, 이승재, “高麗 顯宗·靖宗代 釋迦塔 增修 기록의 판독·역주,” 『석가탑 발견유물조사 중간보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 5) ① 안승준, “불국사 무구정광탑 중수기의 해독,”; 안승준, 김태식, “석가탑(무구정광탑) 중수기에 대한 초보적 검토,” 『신라사학회 제59차 학술발표회 발표문』 2007년 3월 24일.
② 최연식,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의 내용에 대한 기초적 검토,” 『불교학리뷰』 2(2007).

여러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올해 들어 6월 20일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불국사>가 공동주최한 「불국사 석가탑 목서지편의 기초적 검토」 학술세미나에서 노명호·이승재 교수의 勞苦로 판독·해석된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譯註」⁷⁾는, 완벽하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의 파악은 보편적으로 수긍할 정도에 이르렀다. 또한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6편의 논문들⁸⁾은 목서지편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아울러 이들 내용은 「무구정광경」과 목서지편의 관련성 등을 파악하는데 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 세미나에서 발표된 여러 연구결과⁹⁾들을 비롯한 최근의 관련 연구들을 두루 기반으로 하여,

첫째, 목서지편의 판독 내용 중에서 「무구정광경」 및 「보협인다라니경」의 납탑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판독된 목서지편의 내용과 관련하여 석가탑에 납탑된 「무구정광경 간행

-
- 6) ① 남동신, “불국사 무구정광탑 중수기와 다보탑,” 한국역사연구회, 2007년 5월 웹진.
 - ② 최연식,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의 재구성을 통한 불국사 석탑 중수 관련 내용의 재검토,” 「불국사 석가탑 출토 “목서지편”과 사리장엄」 (서울: 동국대학교, 2008. 1. 23).
 - ③ 한정호,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와 小倉 컬렉션 傳 경주 남산 출토 사리장엄구,” 「불국사 석가탑 출토 “목서지편”과 사리장엄」 (서울: 동국대학교, 2008. 1. 23), 29-51.
- 7)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譯註,”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판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재)불교문화재단연구소, 2008), 139-189.
- 8) ① 박지선, “목서지편의 보존처리와 연구에 관한 제안,”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3-6.
 - ② 노명호, “석가탑 목서지편 문서의 연결 복원과 판독,”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9-34.
 - ③ 이승재, “목서지편의 어학적 의의,”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37-57.
 - ④ 최연식, “석가탑 발견 목서지편의 내용을 통해 본 고려시대 불국사의 현황과 운영,”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61-81.
 - ⑤ 주경미, “목서지편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87-114.
 - ⑥ 박상국,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목서지편,”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119-129.
- 9) 상계주, ①-⑥의 서지, 참조.

의 下限年度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셋째, 위 둘째 사항에서 도출된 무구정광경의 하한년도와 2007년 6월에 발표한 필자의 「「무구정광경」 간행의 上限年度」¹⁰⁾ 내용을 종합함으로써,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를 도출하고자 한다.

2. 목서지편의 의의 및 「무구정광경」

2.1 목서지편의 의의

무릇 탑파(塔婆)란 분다(Buddha: 覺者; 釋迦牟尼)의舍利를安置하고 敬拜하는 신앙 대상으로서의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 「무구정광경」은 704년에 중국에서 번역되고 곧바로 신라에 전래되면서, 이 경전은 造塔經의 所依經典으로 자리잡게 된다. 동시에 이 경전은 法舍利로서의 기능도 함께 하는 이른바 일종의 流行性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는 705년경에 이미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에 「무구정광경」에 內在된 다라니가 書寫되어 納塔된 사례가 있고,¹¹⁾ 706년에는 ‘경주 구황리 삼층석탑’에 「무구정광경」 1권이 법사리로서 納입된 사례¹²⁾가 있는 이래, 한반도에서는 8세기초부터 9세기말까지 「무구정광경」에 입각하여 석탑이 조성되는 사례가 크게 유행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에 무려 16개 이상의 석탑이 조성되었다.¹³⁾

1966년 석가탑에서 사리장엄물들이 출현되자, 근자에 이르기까지, 이들 장엄물 중 銅鏡 및 유향을 포장했던 韓紙에 기록된 ‘重大師’ 등의 내용으로 인하여,

10)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시기에 대한 재검증 연구,” 『書誌學研究』 第36輯 (2007. 6), 39-80.

11)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고증에 의한 목판인쇄술의 기원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47-54.

12) 김성수, 상계논문, 54-57.

13)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목서지편에 대한 토론 요지,”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136.

「무구정광경」을 포함한 석가탑 발견 일괄 장엄물에 대하여 ‘고려시대의 유물이混在되어 있을 것’이라는指摘도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최근에 판독된 석가탑의 목서지편은, 위와 같은 무구정광탑이 처음 개창되고 몇 백년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 석탑이 어떻게重修되었는가를 극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顯宗 15(1024)年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와 「靖宗 4(1038)年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¹⁴⁾ 등의 중수기와 중수형지기가 판독·해석됨으로써, 1966년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경」을 비롯한 사리장엄 일괄유물의 성격 규명에 대한 징검다리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2 목서지편의 판독과 관련한 「무구정광경」 및 「보협인다라니경」

석가탑 목서지편 문서의 연결 복원과 판독을 주도한 노명호 교수는, 목서지편을 1)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一括文書(실제로는 ① 「顯宗 15(1024)年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와 이에 연결된 ② 「顯宗 15(1024)年 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形止記」의 두 건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음), 2)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③ 靖宗 4(1038)年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와 ④ 「靖宗 4(1038)年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누락분 追記」), 3) 「佛國寺塔重修布施名公衆僧小名記」로 구분¹⁵⁾하고 있다. 그런데 박지선 교수는, “심지어 이 목서지편 윗편[上部]에 있었던 「보협인다라니경」 조차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듯하다”¹⁶⁾라고指摘하고 있다. 이 지적은 곧 목서지편의 상부 부분에 「보협인다라니경」이 여타의 목서지편과 한데

14) 「形止記」란 ‘사실의 전말, 또는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기록’한 것으로, 이 「서석탑 형지기」는 1038년 당시 ‘불국사 서석탑(석가탑)의 중수와 관련한 세부작업 일지’라 보면 그 이해가 빠를 것이다. 목서지편 중 「서석탑 형지기」에서는 그 제목에서 ‘불국사 西石塔’이라고 그 위치로써 당해 탑의 존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하여 현재 우리가 지칭하는 ‘석가탑’의 형지기로 보는 데에 異見이 없다. 따라서 이른바, 이 세부작업 일지는 1038년 당시 석가탑의 중수에 관한 매우 명징(明澄)한 보완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5) 노명호, “석가탑 목서지편 문서의 연결 복원과 판독,” 10-21.

16) 박지선, “「목서지편의 보존처리와 연구에 관한 제안,」 5.

영겨 붙어, 마치 시루떡처럼 하나의 종이뭉치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목서지편은 위 3종의 문서와 여기에 「보협인다라니경」이 추가됨으로써 총 4종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¹⁷⁾ 이제 이들 古文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종 15(1024)년 불국사 무구정광탑 중수기(이하 ‘무구정광탑 중수기’라 약칭함)의 내용은 크게 4구분하여, ① ‘불국사의 내력’ 및 ‘중수작업의 진행 경위 및 날짜 별 작업상황의 기록’, ② ‘사리 봉안 및 사리 봉안 때의 헌납물 시주 명단’, ③ ‘중수 작업을 주도한 승려와 장인들의 명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별도의 문서라고 보이면서도 앞의 중수기와 연결되어 있는 현종 15(1024)년 불국사 무구정광탑중수형지기」에서는 ④ ‘중수 작업을 위해 시주한 물품 명단’, ⑤ ‘중수 작업 중 매일 매일의 식사와 그 채원 부분’ 등이 추가되어 있다.¹⁸⁾

둘째, 「정종 4(1038)년 불국사 서석탑 중수형지기(이하 ‘서석탑 형지기」라 약칭함)의 내용은 대략 ① ‘불국사의 내력 및 중수 작업을 하게 된 배경 및 날짜별 작업 내용과 음식 제공 상황’, ② ‘사리 봉안 및 사리 봉안 때의 헌납물 시주 명단’ 그리고 ‘중수 과정 중에 음식을 시주한 명단’, ③ 중수 작업 당시의 승려 명단 및 중수를 담당한 장인의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다.¹⁹⁾

셋째, 「불국사탑 중수 보시명 공중승 소명기」의 내용은 중수 과정에 필요한 물자의 시주 명단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올해 6월 20일에 개최된 불국사 석가탑 목서지편의 기초적 검토」 학술 세미나에서 배포된 圖錄의 <사진 4부터 13까지>의 목서지편들²⁰⁾은 11세기 당시에 筆寫된 것으로 보이는 「보협인다라니경」 寫經 殘片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17) 이승재 교수는 ‘목서지편은 筆寫한 경전[보협인다라니경]과 필사한 고문서의 두 가지로 나뉜다’(이승재, “墨書紙片의 語學的 意義,” 38)고 진술하고 있다.

18) 최연식,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의 재구성을 통한 불국사 석탑 중수 관련 내용의 재검토,” 『진단학보』 제105집(2008. 6), 22-23.

19) 최연식,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의 재구성을 통한 불국사 석탑 중수 관련 내용의 재검토,” 『진단학보』 제105집(2008. 6), 21-22.

20)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편,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圖錄 자료집)』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10-19.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세기 당시의 보협인다라니경의 筆法은 ‘中國 書法發展史에서 5세기말·6세기초의 筆法과 類似하게 비교되는 신라 8세기초 『무구정광경』의 書法²¹⁾과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무구정광경』에 비하여 무려 3세기 이상 발전된 서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²²⁾

위와 같은 寫經 『보협인다라니경』 잔편 사진들 각각의 내용을 『高麗大藏經』 K.1287. 影印本 제36권에 所在하는 不空 奉譯의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의 831-834쪽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잔편에서 판독되는 부분들이 재조대장경 소재 보협인다라니경에서 단 1字의 誤字도 없이 각각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을 필자가 직접 각각 확인하였다.²³⁾

21)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고증에 의한 목판인쇄술의 기원 연구,” 61-138. 참고.

22) 특히 『무구정광경』의 서법에서 등근 筆意의 運筆法은 8세기 전기에 신라에서 유행한 서법임을 實證해 주는 것이다(천혜봉,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163). 이와 같은 서법은 경북 <냉수리 신라비(443 추정)> 및 <봉평 신라비(524)> 및 <임신서기석(552)> 등의 필법을 계승한 전통적이고 古拙한 新羅書法 즉 ‘新羅書體’이다(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고증에 의한 목판인쇄술의 기원 연구,” 248). 반면에 8세기초의 중국의 서법은 숙련되고 楷正하며 整形화된 ‘寫經體’로 발달되어 있었다(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고증에 의한 목판인쇄술의 기원 연구,” 122).

한편, 『보협인다라니경』은 중국에서 吳越國 忠懿王 錢弘俶(948-978)이 『보협인다라니경』을 봉안한 이후, 한국에서 조탑경으로서 『보협인다라니경』은 고려초(11세기)에 유행함(강우방, “佛舍利莊嚴論,” 『法空과 莊嚴』 (서울: 열화당, 2000), 382). 따라서 1038년 또는 1024년 석가탑 중수 당시에 새로운 조탑경으로 납입하였다면 『보협인다라니경』을 추가납입(追納)하는 것이 그 당시의 思潮였을 것임. 그렇다면 목서지편 ‘64·77쪽’의 제22행에 기록된 『보협인다라니경』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3) ① <사진 4>: 『고려재조대장경』 제36권 (서울: 동국대학교 역경원, 1976), 833쪽, 下段 제9-14행. 所在.

② <사진 5>: 『고려대장경』 제36권, 832쪽, 中段 제4-8행.

③ <사진 6>: 『고려대장경』 제36권, 833쪽, 中段 제3-6행.

④ <사진 7>: 『고려대장경』 제36권, 832쪽, 下段 제8-13행.

⑤ <사진 8>: 『고려대장경』 제36권, 831쪽, 下段 본문 제16-19행, 832쪽 제1-2행.

⑥ <사진 9>: 『고려대장경』 제36권, 834쪽, 上段 제22-23행, 834쪽 中段 제1-3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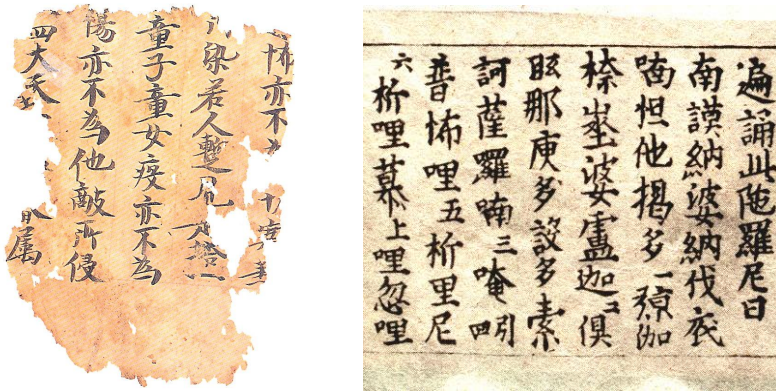
⑦ <사진 10>: 『고려대장경』 제36권, 834쪽, 上段 제12-18행.

⑧ <사진 11>: 『고려대장경』 제36권, 832쪽, 上段 제6-12행.

⑨ <사진 12>: 『고려대장경』 제36권, 832쪽, 中段 제23행, 832쪽 下段 제1-5행.

⑩ <사진 13>: 『고려대장경』 제36권, 833쪽, 中段 제10-16행.

위의 사진에 나타나는 내용과 고려대장경의 해당 부분과의 비교 결과, 위 寫經은 대략



<사진 1> 「보협인다라니경」 殘片 및 「무구정광경」의 書法

이상과 같이 목서지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위 4종으로 구성된 고려시대의 목서지편은 그 판독문²⁴⁾ 등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導出할 수 있다.

첫째, 무구정광탑 중수기 및 「서석탑 형지기 의 기록 내용을 종합하면, ‘西石塔(석가탑)은 경덕왕 즉위년인 742년(天寶元年: 壬午)에 신라 경덕왕의 제1재상이었던 (金)大成 角干이 개창하였으며, 혜공왕 代에 마쳐 세웠다. 그리고 고려 덕종(1031-1034) 시대까지 나쁜 재앙이 없었다.’²⁵⁾

둘째, 「무구정광탑 중수기」에 의하면, ‘현종 15(1024)년 吉日로 선택된 2월 17일에 탑을 해체하였고, 2월 18일 아침(辰時) [탑의 사리장치에서] ① 臺錦冬刀音(대의 비단 보자기) 1, ② 銅鍍金(盒)▲ 및 ▲의 비단刀冬音 1, ③ 无垢淨光陀羅尼▲ 9偏[編], ④ 全金瓶 1 및 隨錦帙 1, ⑤ 舍利 8軀, ⑥ ▲鍍金函1 및 隨錦刀冬音 1 ⑦ 无垢淨光陀羅尼經 1卷 및 隨錦帙 1 등을 발견하여, 앞과 같이 안치하여 갈무리해(安藏) 두었다.’²⁶⁾ 이와 같은 開塔 당시의 장엄물들에 대하여, 주경미

‘1行 19字’ 정도로 書寫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24) 노명호, 이승재, “高麗 顯宗·靖宗代 釋迦塔 增修 기록의 판독·역주,” 140-188.

25)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141-142, 159-161.

26)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143-146.

교수는 “탑을 해체하면서 2월 18일에 발견된 사리장엄물들은 아마도 창건기에 봉안된 유물일 가능성이 크다”²⁷⁾고 논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사리장엄물들은 1024년 3월 14일 이후에 석탑 사리공에 재봉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2월 18일에 발견되어 안장하여 두었던 『무구정광경』 1권을 비롯한 창건기의 사리장엄물들이 1차 재봉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024년 당시 『보협인다라니경』을 비롯한 각종 쟈 및 (小)木塔 등 31종의 장엄물들²⁸⁾이 첨가되어, 3월 14일에 드디어 한꺼번에 석가탑의 舍利孔 등에 再奉安되었음²⁹⁾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서석탑 형지기』에 의하면, ‘정종 2(1036)년 6월 21일의 큰 지진으로 인하여 서석탑(석가탑)이 도괴될 상태에 이르렀고, 정종 4(1038)년 1월 또 한 차례 지진이 있었다.’³⁰⁾ 그리하여 ‘1038년 1월 24일부터 탑을 해체하기 시작하여, 1월 30일 경에 사리와 사리장엄구 등 봉헌물 즉, ‘① 銅鍍金 金堂 1坐, ② 4面鎔蘭草 ▲■脚臺, ③ 堂內銅鍍金仰蓮花坐 1, ④ 靑琉璃瓶에 안치된 舍利 47軀, ⑤ 赤■香 4裹, ⑥ 珠 39个, ⑦ 鑰中 2, ⑧ 小木塔 15’ 등 안치되어 있던 봉헌물들을 藏堂에 모셨다.’³¹⁾ 그리하여, 2월 13일에 사리 등을 석탑에 재봉안하게 되는데, 특히 이 『서석탑 형지기』에서는 “사리를 안장하되, 전에 있던 물건들은 바꾸지 않고(舍利安藏爲白乎矣前物不動)”라고 기록하고 있다.³²⁾ 그리고 ‘前物不動’ 이하의 기록(‘85·88쪽’의 제62행 이하)들은 ‘사리를 재안장할 때 그 당시에 추가된 봉헌물 목록’³³⁾이라고 보는 견해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무구정광탑 중수기』에서 그 처음의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고, 1024년

27) 주경미, “묵서지편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93.

28) 이 때 추가한 31종의 장엄물은, {주경미, “묵서지편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92쪽에 수록된 <표 2> 무구정광탑중수기의 사리장엄 관련용어}에서 번호8부터 38까지로 일목요연하게 제시되고 있음.

29)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146-148.

30)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161-162.

31)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164-167.

32)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172-173.

33) 최연식,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의 재구성을 통한 불국사 석탑 중수 관련 내용의 재검토,” 19. 참고.

3월 14일 이후의 납입물에서만 기록되고, 이번에 목서지편의 맨 위에서 발견되면서 10片 이상으로 분리되어 판독된 「보협인다라니경」 寫經은 11세기 전기 당시에 납입된 것으로 거듭 확인되었다.³⁴⁾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6년 석가탑 2층 탑신 사리공에서 사리함 등이 발굴되었을 때, 무구정광경 은 사리외함의 内部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판독된 목서지편의 일부로 발견된 사경 「보협인다라니경」은 사리공의 바닥, 즉 사리외함의 外部에서 발견되었다.

위의 사항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사리를 비롯한 신라시대에 사리외함의 내부에 봉안되었던 장엄물들은, 11세기에 석탑을 중수한 후 재봉안할 당시에도 당연히 사리외함 내에 再安藏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무구정광경」의 경우, 설령 이 경을 포장한 비단주머니가 11세기 당시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체인 다라니경이 신라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사리함의 내부에 재안장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위 둘째 사항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서석탑 형지기」에서 “사리를 안장하되, 전에 있던 물건들은 바꾸지 않고(舍利安藏爲白乎矣前物不動)”³⁵⁾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한다면, 서석탑(석가탑)의 창건 당시에 봉안된 眞身舍利를 비롯한 法舍利인 「무구정광다라니경」 등은 1024년과 1038년의 중수 당시에 지속적으로 사리함 내에 安置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보협인다라니경」 및 銅鏡·유항 등 고려시대의 봉헌물들은 사리외함의 바깥의 주변, 즉 사리공 내에 적절한 위치에 안장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1966년 석가탑 발견유물에 관하여 「무구정광경」과 「보협인다라니경」에 국한하여 본다면, 목서지편의 「무구정광탑 중수기(1024)의 기록 및 서석탑 형지기(1038)」의 기록과 ‘1966년의 석가탑 발견 장엄물’은 서로 일치하는 셈이다.

34) ①註 23)의 ①-⑩의 내용 참조.

② 이승재, “목서지편의 어학적 의의,” 38-39.

35) 각주 32)의 본문, 참조 요.

3. 「무구정광탑 중수기」와 「무구정광경」

본 장에서는 목서지편 중 「무구정광경 중수기」의 내용 중 「무구정광경」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무구정광경」이 목판인쇄로 간행되어 석가탑에 납입된 상황 및 그 년도를 규명하고, 이에 따라 석가탑 무구정광경 간행의 하한년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3.1 무구정광탑의 正體

1024년(현종 15) 「무구정광탑 중수기」에서 「무구정광경」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 같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1966년에 「무구정광탑 중수기(1024)」와 「서석탑 형지기(1038)」 등의 고문서가 ‘석가탑’의 석탑 사리공에서 발견되었다. 이들 고문서에 기록된 제목 중의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가 ‘석가탑’이라고 지칭하는 석탑을 11세기 초기에는 ‘无垢淨光塔’ 또는 ‘佛國寺 西石塔’이라고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구정광탑’은 곧 ‘불국사 서석탑’이며, 동시에 ‘석가탑’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해당 탑을 창건하면서 「무구정광경」에 입각하여[所依] 조탑하였기 때문에 그 탑이 11세기 당시까지 ‘무구정광탑’이라고 일반적인 명칭으로 지칭되어 내려왔고, 또한 그 탑의 일반적인 명칭에 입각하여 중수기의 제목을 자연스럽게 ‘무구정광탑중수기’라 기록하고, 그 기록물을 해당 탑 안에 납입한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석가탑의 중수기이니까 당연히 그 탑 안에 봉안되었다’³⁶⁾고 보는 것이다.

둘째, 1966년 석가탑을 해체하였을 때, 그 사리공에서 목제소탑이 다수 발견되었고, 금동제방형사리함에도 탑파가 그림 문양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게다가 ‘무구정광경」 1권’이 실제로 출현한 것은 「무구정광경」에 입각하여 해당 탑을 조성

36) 주경미, “목서지편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112.

하였음을 그 유물 자체 스스로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만약 1024년 및 1038년 중수 당시 다른 탑, 예컨대 다보탑 유물의 일부를 석가탑에 옮겨 납입하였다면, 이렇게 많은 「무구정광경」을 所依로 하는 관련 유물들이 한꺼번에 납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석가탑 당해 탑의 正體는 곧 무구정광탑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무구정광경」 1권’ 또는 그 다라니[呪文] 및 奉獻小塔 등이 납입되었던 이른바 무구정광탑들 즉,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705년경)’을 비롯하여 ‘경주 구황리 삼층석탑(傳皇福寺址三層石塔 706)’·‘불국사 서석탑(석가탑)’ 등 9세기 말까지 「무구정광경」을 造塔經典으로 삼았던 16개 이상의 탑들은 거의 모두 석가탑과 그 형태가 類似한 長方形의 탑 모양을 하고 있다.³⁷⁾ 또한 이들 탑에서 발굴된 99개 등의 小塔들 대부분이 공교롭게도 長方形의 탑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석가탑이 바로 ‘무구정광탑’이면서 동시에 ‘불국사 서석탑’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무구정광경」이 납입되고, ‘무구정광탑’이라고 지칭된 탑은 바로 ‘석가탑’이며, 이는 곧 ‘불국사 서석탑’일 개연성이 다분히 농후하다고 일단 제기한다.³⁸⁾

37) ①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고증에 의한 목판인쇄술의 기원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12-14.
 ② 국립중앙박물관, 「佛舍利莊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91).

38) 물론 탑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그 造塔에 있어서 「무구정광경」을 所依로 삼았다면, 그 탑을 ‘무구정광탑’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①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학계에서는 ‘무구정광탑은 다보탑을 가르킨다’는 주장도 있다(최연식,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의 재구성을 통한 불국사 석탑 중수 관련 내용의 재검토,” 「진단학보 제105집(2008. 6.), 1-35). 이같은 최연식 교수의 견해 또한 나름 경청할 부분이 많고 상당한 타당성도 있다고 본다.
 ② 한편, 주경미 교수는, “기본적으로 다보탑의 구조와 출토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막연하게 석탑 부재의 형태적 유사성만으로 「무구정광탑중수기」를 다보탑 중수기로 확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주경미, “목서지편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112.)”라고 그 결론에서 주장하고 있다.
 ‘무구정광탑은 다보탑인가? 석가탑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및 토론은, 차후 석가탑 발견 일괄유물에 대한 관련 학문분야의 종합적 네트워크를 구성한 학제간의 연구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3.2 无垢淨光塔의 造成年度와 「무구정광경」

무구정광탑의 조성년도와 관련하여, 「불국사 석가탑 목서지편의 기초적 검토」
圖錄의 목서지편 <사진 69·72쪽>의 제1-4행의 내용에서

“太平4年(1024, 顯宗 15) (佛)國寺 无垢淨光塔 重修_____記.
위(右)의 탑을 開闢한 일은 신라 제35대 경덕대왕 朝의 相公인 大城 角干이,
(경덕)왕이 즉위한 天寶元年(742) 임오년부터 조성하여 세우옵되, 혜공대왕의
대에야 완성하옵신 일이 있었다(右塔開闢爲白乎事之殷新羅第[三] / 十五代_
景德大王朝相公大成角干亦_王矣即位天寶元年壬午(742)元成立 / (爲)白乎
矣惠.恭王代良)中沙 ▲成立爲白教事是置在亦)”³⁹⁾

라 하였다. 이에 따라 불국사 무구정광탑은 742년 경덕왕이 즉위한 해에 당시
相公이었던 金大城에 의하여 당해년에 造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
면, 석가탑과 같은 한국 석탑의 규모 및 그 조성 기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
지로, 공사 착공 이후 1년 이내에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다만 ‘혜공왕 시대에 완성되었다’는 기록은 별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컨대 佛像의 造成에서 비록 어떤 時日에 이미 완공되어 있었다 하더
라도,吉日을 선택하여 후일의 특정 시일에 點眼式 등의 엄격한 의식을 거행한
날짜를 바로 그 불상 조성의 완공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석탑
은 비록 거의 완공되었다 하더라도,⁴⁰⁾ 석탑 주변의 정비와 최후의 치장 및 석탑의
밀교적인 완공 儀禮 등 그 상징적인 완공식만 미루어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
여 불국사 전체 가람[寺刹]을 완공하는 시점에 맞추어, 석탑을 비롯한 사찰 전체
의 전각 건립 및 단청과 조경 등등 모든 공사를 일괄적으로 완공한 후, ‘동·서

요컨대, 필자의 관점은 석가탑에서 실제로 발견된 「무구정광경 인쇄본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그 주안점이기 때문에, 위의 문제는 차후 학제간의 연계연구에서 토의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며, 본고에서는 더 이상의 논급은 삼가고자 한다.

39)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141.

40) 물론 석탑을 쌓아가는 과정 중, 탑의 중간 塔身이나 屋蓋石 등에 마련된 사리공(舍利孔)에
사리 및 法舍利인 무구정광경 등을 납입한 사리함을 안치할 때에는 별도로 ‘사리함 안장
(安藏) 의식’은 당연히 거행하였을 것이다.

석탑⁴¹⁾ 및 가람 전체의 완공에 대한 성대하고도 엄격한 의례를 거행하였을 때의 시점이 바로 ‘혜공왕 시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⁴²⁾ 따라서 무구정광탑이 석가탑이든 다보탑이든 상관없이, 불국사 동·서 석탑의 실제적인 조성년도는 742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구정광경」이 불국사 무구정광탑에 納入된 시기는 742년 당해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상국 위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⁴³⁾ 「무구정광경」은 742년 이전에 목판인쇄로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성립된다.

3.3 无垢淨光塔의 重修·해체(1024)와 「무구정광경」

「무구정광탑 중수기」에서, 현종 15(1024)년에 무구정광탑을 중수하기 위하여 기존의 탑을 해체할 당시의 기록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53·56쪽’의 제10-13행 및 ‘48·61쪽’의 제15-17행에 보이는 바와 같이,

“태평4년⁴⁴⁾(甲)[子] / 2월 17일, 吉日을 정하여 탑을 해체하였다.
仰蓮臺 花蕊 筒柱에 (舍利를) 藏하여 두시었던 것을 18일 辰時에 내리어 金堂
庭中에 모시웁고 / / 臺의 비단 刀冬音⁴⁵⁾ 하나, 도금된 구리 盒 ▲
/ ▲의 비단 刀冬音 하나, 无垢淨光陀羅尼 ▲九編[編],⁴⁶⁾ 全金瓶 하나, (금병을

41) 현재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다보탑·석가탑’을 의미함.
42) 박상국 위원은, “흔히 불국사 佛事가 혜공왕대에 모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석가탑 건립은 경덕왕 원년(742)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석가탑을 둘러싼 八方金剛座는 무구정[광]경에 의한 密敎 法式을 행하는 의식용 금강좌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설비를 비롯해서 행랑 등 주변 정비 그리고 크게는 대웅전 등 전각 건립이나 단청 등 후속 불사가 혜공왕대(765-779)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석가탑은 742년에 창건되었고, 무구정광다라니경은 742년에 봉안되었으므로 무구정광다라니경은 742년 이전에 간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박상국,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목서지편,” 121-122.)”라고 주장하고 있다.
43) 上揭註의 註文 내용 참조.
44) 현종 15(1024)년, 甲子年.
45) 노명호, 이승재 교수는 이것을 ‘보자기’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있다.
46) 노명호, 이승재 교수는 ‘无垢淨光陀羅尼 ▲ 9編’에 대하여 “무구정광다라니경 (9집)9편”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무구정광경」에 포함[內在]되어 있는 6개의 다라니를 77회 또는 99회 書寫하면 무량공덕을 얻는다’는 내용에 입각하여, 筆寫·納入된 다라니[呪文]

싼) 딸린 비단포대 하나, 舍利 8軀, 도금된 ▲함 하나, (함을 싼) 딸린 비단
刀冬音 하나, 无垢淨光陀羅尼經 一卷, (경을 싼) 딸린 비단 포대 하나를 앞(右)
과 같이 안치하여 갈무리(安藏)해 두시며, ……….”⁴⁷⁾

라고 기록하고 있다. 위 인용문의 둘째 줄에 보이는 ‘사리함 내의 용기(容器)라고 추정되는]⁴⁸⁾ 양련대· 화예· 통주에 갈무리 되었던 사리 등을 18일 辰時에 내리어 金堂의 가운데 모셨다’⁴⁹⁾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위 인용문의 셋째 줄 이하에 보이는 “㉔ 臺錦冬刀音(대의 비단 보자기) 1, ㉕ 銅鍍金盒 및 ▲의 비단 刀冬音 1, ㉖ 无垢淨光陀羅尼▲9編[編], ㉗ 全金瓶 1 및 隨錦帔 1, ㉘ 舍利 8軀, ㉙ ▲鍍金函 1 및 隨錦刀冬音 1 ㉚ 无垢淨光陀羅尼經 1卷 및 隨錦帔 1’을 앞(右)과 같이 안치하여 갈무리해 두다(安藏)”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7종의 사리장엄물들은 1024년 2월 18일에 탑을 해체하면서 발견된 유물들이며, 사리함 내에 안藏되어 있었던 사리장엄물의 목록을 기록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구정광탑 중수기』에 742년부터 1024년까지 282년 동안에는 이 탑의 중수 또는 재앙 등에 관한 별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유물들은 곧 석가탑의 창건기에 봉안된 유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⁰⁾

[9]9編이 殘存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다라니는 竹簡이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47)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143-146.
48)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144쪽의 각주 31)의 註文 參照.
49) 한편, 주경미 교수는 위 ‘양련대· 화예· 통주’를 석탑의 부재에 관한 용어라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주교수는 위 본문의 내용에 대하여, “내용상으로 볼 때, 양련대· 화예· 통주를 내리고 난 뒤에 사리장엄구가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주경미, “묵서지편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90)고 논술하고 있다.
50) 주경미 교수 또한 『무구정광탑중수기』의 이 부분에 대하여, “이상의 내용을 보면, 38중에 이르는 사리장엄 관련용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다. 먼저 14행부터 15행까지[실제로는 ‘제15행부터 17행’임: ‘48·61쪽’의 앞 부분인 14행 부분에 해독할 수 없는 1행이 있기 때문]의 목록은 2월 18일 탑을 해체하면서 발견된 물건들의 명칭이다. 즉 이것은 원래 창건기 탑의 사리장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편 20행[실제로는 제22행] 이하에 등장하는 목록은 3월 14일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탑에 사리를 재봉안하면서 봉안한 목록을 기록한 것이라 생각된다(주경미, “묵서지편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90-91)”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주교수

그리하여 「무구정광탑중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무구정광경」 1권은 석가탑이 실제적으로 창건된 742년 당시에 석탑에 이미 납입되어 있었음을 그 스스로가 증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구정광경은 742년 이전에 이미 목판인쇄로 간행되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석가탑 발견 「무구정광경」 간행의 下限年度를 '742년 이전'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서석탑 형지기」와 「무구정광경」

서석탑 형지기는 靖宗 4(太平 18: 1038)년 정월부터 2월 13일까지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전체 96行으로 이루어진 문서'로 판독되고 있다.⁵¹⁾

본 장에서는 「서석탑 형지기」의 내용 중 「무구정광경」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서석탑 형지기」가 작성된 1038년 당시 「무구정광경」이 석가탑에 납입된 상황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석가탑 「무구정광경」 간행의 하한년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제 이 형지기의 내용 중 무구정광경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4.1 西石塔의 1038년 重修와 「무구정광경」

「서석탑 형지기」의 제1행부터 7행의 내용에서는, ① 서석탑(석가탑)이 742년(天寶元年)에 개창된 史實, ② 혜공왕 시대에 완공된 일'을 기록한 후, 이에 연이어

는, 이어지는 <표 2>에서도 ① '창건기의 사리장엄물'과 ② '3월 14일 이후 재봉안 때에 봉안한 물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리하여, '61·48쪽'의 제19행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유물, 즉 3월 14일 이후의 기록인 「寶篋印陀羅尼經」 이하에서 연이어 기록되어 있는 31종의 사리장엄물들은 1024년에 추가로 봉안된 것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이들 장엄물과 위 인용문의 장엄물들은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51)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159-178.

“... 해공대왕의 □□ / ■끝내어 만들어 세우신 일이 있으시거늘, 高麗國 德宗行躋(행강)대왕의 代에 이르도록 나쁜 (재앙)이 없었으며, 太平16年(德宗 2(1036); 丙子) 6월 21일 辰時부터 지진이 나서 佛門 남쪽 큰 계단이 무너졌으며, 西邊[서쪽] 석탑(석가탑)이 기울어져 무너질 것 같으셨거늘 ...”⁵²⁾

이러 하여, '742년 탑이 개창된 이래 고려 덕종 시대(1036)까지 나쁜 (재앙)이 없었으며, 1036년 6월 21의 地震으로 인하여 西石塔(석가탑)이 기울어져 무너질 것 같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즉, 「무구정광탑 중수기(1024)」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던, '신라 해공왕 시대부터 1036년 당시까지 석가탑에 그 어떤 재앙도 없었다'는 사항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앞 장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1024년 무구정광탑의 중수·해체 때 발견된 사리장엄물들은 742년 무구정광탑이 개창될 당시에 납입되었던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서석탑 형지기의 기록은 총괄적으로 서술된 「무구정광탑 중수기」의 내용을 보완해 주는 바, 형지기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2 小木塔 및 「무구정광경」의 납입

「서석탑 형지기」에 '1038년 1월 24일부터 탑을 해체하기 시작하여, 1월 30일 경에 사리와 사리장엄구 등 봉헌물 즉, 舍利 47軀 및 소목탑 15基를 비롯한 8種의 있던 봉헌물들을 藏堂에 모셨다'⁵³⁾고 기록되어 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⁵⁴⁾

여기서 「무구정광경」과 관련하여, 위의 기록이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바로 '소목탑 15기가 안치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들 소목탑은 바로 서석탑(석가탑)이 「무구정광경」에 입각하여 조탑된 이른바 무구정광탑 임을 立證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주경미 교수는 위 '소목탑 15기는 아마도 창건 당시에 봉안된 사리장엄물의 일부로써, 1024년의 기록에는 빠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

52)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160-161.

53)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164-167.

54) 각주 31)의 본문 참조 요.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⁵⁾라고 논술하고 있다. 따라서 불국사 석가탑은 창건 당시부터 「무구정광경」을 所依經典으로 하여 造塔한 이른바 ‘무구정광탑’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1038년 서석탑 형지기에 ‘목탑 15기가 발견되었다’는 사항만 기록되어 있고, 탑을 열었을 당시에 발견된 물품의 목록에 ‘「무구정광경」이 발견되었다’는 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緣由는 무엇인가?⁵⁶⁾

위 사항에 대하여, 주경미 교수는

“1038년의 기록에는 탑을 열었을 당시에 발견된 물품의 목록에 무구정[광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아마도 1038년 수리 당시에 일부 보수를 하였거나 새로 비단주머니를 만들어 봉안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1038년의 앞부분 물품은 거의 변형이 없이 안치한 것이며, 뒷부분의 물품은 재봉안하면서 수리하거나 약간 변형한 것이기 때문이다.”⁵⁷⁾

라 하여, 신라 때 납입된 「무구정광경」을 포장하였던 비단주머니에 대하여, 1038년 당시에 이 경을 장식할 포장용 비단주머니를 새로 제작하고, 이것으로 신라 때의 「무구정광경」을 포장하여 재봉안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38년 開塔하였을 당시 변형이 없이 안치한 사리장엄물 목록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서석탑 형지기」에서는, 1038년 2월 13일 이후 서석탑(석가탑)에 사리

55) 주경미, “목서지편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111.
56)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하여 ‘「무구정광경」이 고려시대에 납입되었을 것’이라고 誤解받을 수 있는 所持가 있었다. 석가탑 사리장엄 관련 용어와 현존 유물과의 관계에서, “1024년의 물품과 1038년의 물품이 서로 맞지 않으며, 1038년의 물품이 1966년의 물품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의 문서 기록이 현대의 발굴보고서와 같이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기록자의 관점이 현대인과는 다른 상식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주경미, “목서지편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108.)”라는 관점을 눈여겨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수기 및 중수형지기의 내용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 없이, 단순히 그 文句만을 판독하여 함부로 해석하여, ‘무구정광경 은 고려시대에 납입된 것’ 등의 오류는 엄중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57) 주경미, “목서지편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110.

를 再安藏하는 시점에서, 즉 판독문의 ‘제78행과 79행에서 「보협인다라니경」과 「무구정광경」을 연이어 납입하였다’⁵⁸⁾는 기록이 보인다. 특히 ‘108·97쪽’에 해당하는 제78행에 “大德⁵⁹⁾崇英 寶篋(篋)(陁)[羅尼經]”이라는 부분,⁶⁰⁾ 그리고 형지기의 ‘107·96쪽’에 해당하는 제79행에 “无垢淨光陁羅尼經一卷”⁶¹⁾이라 明記되어 있다.⁶²⁾ 이들 기록 즉, “大德崇英 寶陁(篋)(陁)[羅尼經] / 无垢淨光陀(羅尼)經一卷”을 연속하여 판독하면, “大德 崇英이 「寶篋(印陁羅尼經)」을 納하고, 그리고 大德 ▲▲가 无垢淨光陁羅尼經 一卷(을 納入하였다)”⁶³⁾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리하여 「서석탑 형지기」에서 「무구정광경」은 사리장엄물을 재안장하는 시점에서 비로소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이 형지기를 판독한 노명호 교수 또한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제79행의 ‘无垢淨光陁羅尼經一卷’은 그 앞뒤 글자가 탈락되어 있어 관련 정황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종15년(1024) 무구정광탑을 해체할 때 나온 신라 때 넣은 그 다라니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⁶⁴⁾

라 하여, 위 「무구정광경」은 신라 때 넣은 그 다라니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논술하고 있다.

따라서, 「서석탑 형지기」는 제목 그대로 중수기의 내용을 보완하면서 실제의 중수작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록한 日誌의 성격을 지닌 고문서임을 감안한다면, 이 형지기에서 「무구정광경」이 1038년 2월 13일 이후 사리장엄물의 재안장 과정에서만 등장하는 연유는 과연 위와 같다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58)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176.

59) 僧侶의 尊稱.

60) 圖錄 <사진 97>의 맨 끝 행.

61) 圖錄 <사진 107>의 제1행.

62)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176.

63) ①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176.

② 최연식,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의 재구성을 통한 불국사 석탑 중수 관련 내용의 재검토,” 20.

64) 노명호, “석가탑 목서지편 문서의 연결 복원과 판독,” 30.

5. 결 론

이상의 본문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는, 목서지편의 의의 및 그 판독과 관련하여 무구정광경 · 「보협인다라니경」에 관한 사항들을 간추려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목서지편의 사경 잔편 및 「무구정광경 중수기(1024)」 · 「서석탑 형지기(1038)」 등의 판독내용을 종합하면,

- 1) 목서지편의 맨 위에 위치하였던 사경 잔편은 11세기 당시의 「보협인다라니경」임이 확인되었다.
- 2) ‘불국사 ‘西石塔(석가탑)은 742년에 金大成이 開闢하였으며, 11세기초까지 나쁜 재앙이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024년에 처음으로 重修하였고, 1036년의 지진으로 인하여 1038년에 다시 중수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3) 1024년 2월 18일에 탑의 사리장치에서 발견된 「무구정광경」 1권은 중수기의 내용상 이 석탑의 창건기 즉 경덕왕 즉위 당시(742)에 봉안된 유물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1038년의 「서석탑 형지기」에서는 사리장엄물을 일괄 납일할 때 「무구정광경」이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형지기에 서의 중요한 단서는, “사리를 안장하되, 전에 있던 물건들은 바꾸지 않고(舍利安藏爲白乎矣前物不動)”라는 기록의 정신 및 관점에 입각하면, 서석탑(석가탑)의 창건 당시에 봉안된 眞身舍利를 비롯한 法舍利인 「무구정광다라니경」은 1024년과 1038년의 중수 당시에 지속적으로 사리함 내에 安置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둘째, 제3장·4장에서는 목서지편 중 「무구정광경 중수기 및 서석탑 형지기」의 내용 중 「무구정광경」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무구정광경」이 목판인쇄로 간행되어 석가탑에 납입된 상황 및 그 년도를 규명하고, 동시에 석가탑 「무구정광경」 간행의 하한년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 1) 「무구정광탑 중수기」와 「서석탑 형지기」 등의 고문서가 ‘석가탑’의 석탑 사리공에서 발견된 상황에 입각하면, 현재의 ‘석가탑’은 11세기 초기에는 ‘无垢淨光塔’ 또는 ‘佛國寺 西石塔’이라고 지칭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탑의 일반적인 명칭에 입각하여 중수기의 제목을 자연스럽게 ‘무구정광탑 중수기’라 기록하였고, 또한 기록된 해당 문서를 당해 탑 안에 납입한 것은 當然之事이다. 이른바, ‘석가탑의 중수기이니까 당연히 그 탑 안에 봉안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서석탑 형지기」 내용 중 ‘1038년 開塔 당시의 목록에 ‘사리 및 木塔 15基 등의 봉헌물을 藏堂에 모셨다’는 기록은, 이 탑이 「무구정광경」을 所依로 하여 조성된 이른바 ‘무구정광탑’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고로, ‘불국사 西石塔’이 바로 ‘무구정광탑’이며 또한 현재 우리가 지칭하는 ‘석가탑’임을 입증된다 하겠다. 따라서 필자는 「무구정광경」이 납입되고, ‘무구정광탑’ 및 ‘서석탑’이라고 지칭된 탑은 바로 현재의 ‘석가탑’임을 提起하였다.
- 2) 「무구정광탑 중수기」와 「서석탑 형지기」 각 序頭의 내용에 입각하여 무구정광탑의 조성년도는 742년 당해년이 되어야 함을 논술하였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한국 석탑의 크기는 1년 이내에 충분히 완공될 수 있는 규모라는 사실 및 불상 조성의 완공 날짜 등을 예로 들어서 논술하였다. 그리하여 「무구정광경」이 무구정광탑에 納入된 시기는 742년 당해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구정광경」은 742년 이전에 목판인쇄로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3) 실제로, 「무구정광탑 중수기」에 1024년 탑을 해체하고 2월 18일에 수습한 사리장엄물 목록에 「무구정광경」 1권이 기록되어 있으며, 1038년의 「서석탑 형지기」에 ‘742년부터 1036년 당시까지 석탑에 나쁜 재앙이 없었다’는 기록 및 “사리를 안장하되, 전에 있던 물건들은 바꾸지 않고(舍利安藏爲白乎矣前物不動)”라는 이른바 ‘前物不動’이라는 고려 당시의 관점에 입각하면, 서석탑(석가탑)의 창건 당시(742)의 法舍利인 「무구정광경」은 1024년과 1038년의 중수 당시에 지속적으로 사리함 내에 安置된 것은 自明하다.

따라서 「무구정광경」 간행의 下限年度는 '742년 이전'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다.

이상과 같이, 첫째로 현재의 '석가탑'이라 지칭되는 석탑은 곧 '불국사 서석탑'이며 동시에 '무구정광경'임을 입증하였다. 둘째로 서석탑(석가탑)의 창건(742) 당시의 法舍利인 「무구정광경」은 1024년과 1038년의 중수 당시에 지속적으로 사리함 내에 安置되었으며, 바로 이 경전이 1966년에 석가탑에서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무구정광경」은 742년 석가탑의 造塔 當時에 이미 석가탑에 納入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무구정광경」은 742년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立證하였다. 고로 '석가탑 발견 「무구정광경」 간행의 下限年度는 742년 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편, 필자는 '문화재 연구는 實在 遺物의 實證적인 비교·검증만이 과학적인 연구'라는 관점에서, 「무구정광경」 書法(筆法)의 특징을 위주로 하여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무구정광경 목판 底本의 筆法(書法) 특히 卷尾題(經題筆師 寫成)의 필법은 706년 銘文인 '경주 구황리 삼층석탑'에서 발굴된 사리함 蓋部(뚜껑) 내면에 기록된 서법과 그 筆性이 동일함을 증명하였다. 그리하여 무구정광경의 권미제 필사자(經題筆師)와 구황리석탑 명문 書寫者는 同一 人物임을 立證하였다. 그런데, 특정 개인의 書寫 습관도 해마다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구정광경」 목판 저본의 寫成 및 刻板年度를 비롯하여 「무구정광경」의 간행의 上限年度는 구황리석탑 사리함의 납탑년도인 706년 이다'라고 立證한 바 있다.⁶⁵⁾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판독된 목서지편의 내용과 관련하여, 法舍利로서 봉안되었던 '석가탑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는 706~742년 이다'라고 증명하였다.

65) 김성수, "「무구정광경대다라니경」의 간행시기에 대한 재검증 연구," 『書誌學研究』 제36집 (2007. 6.), 39-79.

<참고 문헌>

1. 原典

「無垢淨光大陀羅尼經」.

「寶篋印陀羅尼經」. 高麗大藏經」 제36권. 서울: 동국대학교 역경원, 1976.
831-834.

釋迦塔 發見 墨書紙片.

2. 단행본

강우방. 法空과 莊嚴」. 서울: 열화당, 2000.

국립중앙박물관. 佛舍利莊嚴 .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91.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의 연구 .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0.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圖錄 자료집) .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 서울: 일지사, 2003.

천혜봉.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3. 논문류

강우방. “佛舍利莊嚴論.” 「佛舍利莊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91. 128-223.

김성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간행 고증에 의한 목판인쇄술의 기원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9.

김성수.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의 간행 시기에 대한 재검증 연구.” 書誌學研究」
第36輯(2007. 6.). 39-80.

남동신. “불국사 무구정광탑 중수기와 다보탑.” 한국역사연구회, 2007년 5월 웹진.

노명호. “묵서지편 내용들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기초적 검토.” 석가탑 발견유물
조사 중간보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석가탑 목서지편의 판독과 관련한 「무구정광경」의 간행년대에 관한 연구

- 노명호. “석가탑 목서지편 문서의 연결 복원과 판독.”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판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9-34.
- 노명호, 이승재. “高麗 顯宗·靖宗代 釋迦塔 增修 기록의 판독·역주.” 석가탑 발견유물조사 중간보고.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 노명호, 이승재. “釋迦塔 墨書紙片 古文書의 判讀 및 역주.”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판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139-189.
- 박상국.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목서지편.”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판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119-129.
- 박지선. “목서지편의 보존처리와 연구에 관한 제안.”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판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3-6.
- 안승준. “불국사 무구정광탑 중수기의 해독.”: 안승준, 김태식. “석가탑(무구정광탑) 중수기에 대한 초보적 검토.” 신라사학회 제59차 학술발표회 발표문. 2007년 3월 24일.
- 이승재. “목서지편의 어학적 의의.”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판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37-57.
- 주경미. “목서지편의 석탑 부재 및 사리장엄 관련 용어.”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판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87-114.
- 최연식.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의 내용에 대한 기초적 검토.” 불교학리뷰, 2(2007).
- 최연식.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의 재구성을 통한 불국사 석탑 중수 관련 내용의 재검토.” 「진단학보」 제105집(2008. 6.), 1-35.
- 최연식. “석가탑 발견 목서지편의 내용을 통해 본 고려시대 불국사의 현황과 운

영.” 佛國寺 釋迦塔 墨書紙片의 기초적 검토: 관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61-81.

한정호.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와 小倉 컬렉션 傳 경주 남산 출토 사리장엄구.” 『불국사 석가탑 출토 “묵서지편”과 사리장엄』. 서울: 동국대학교, 2008. 1. 23. 29-51.